

# 버럭 11월호

## Contents

동료상담가 보수교육을 진행하며	2
10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영화관람	4
하반기 체험 김치 담그기 '나누리'	6
자립생활주택 여가·문화체험 김○○씨 개별ILP	8
사회복지사 실습생활을 하며	10
이달의 정보	12
이달의 시	14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15
광고	16



# 동료상담가 보수교육을 진행하며.....

전난희



동료상담의 이해 진행 모습

11월 06일 강북센터 교육실 1707호에서 진행되었던 동료상담가 보수교육은 김창화(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강사님의 진행으로 14:00 ~ 18:00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보수교육 1교시에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에 대한 인식 차이점을 영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2교시에서는 기초·심화에서 배운 동료상담의 기본적인 상담의 기법인

New & Good을 시작으로 새로웠던 것, 행복했던 것과 다행이었던 것, 그리고 동료상담의 역사적 배경과 동료상담의 이해 등을 진행함으로써 복습의 시간을 가졌다. 3교시와 4교시에서는 동료상담의 기법인 공감과 연결의 대화방법으로 공감기법과 자기조율기법, 미래링기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동료상담 시 내담자와의 관계 및 소통과 대화기술에 관한 내용의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공감의 대화기술, 수용과 창조적인 대화의 기술, 소통의 대화, 마음을 담은 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보수교육의 1교시, 2교시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영상을 보며 강사의 설명으로 진행되었고, 3교시, 4교시는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어려움 등을 공유하며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토론행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져 참여도가 높았다.

참여자 주○○씨는 10년 전 오른쪽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그 당시에는 절망 속에 있었으나, 우연한 기회에 동료상담을 받게 되어 다시금 사회 속에서 더불어



다양한 동료상담 기법 진행 모습



보수교육 수료식

적으로도 억압만을 느끼고 있을 당시 동료상담가란걸 알게 되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란 생각에 기초와 심화, 보수까지 듣게 되었다. 이번 보수교육을 들으며 기초·심화과정을 다시 복습 할 수 있어서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을 다잡는 기회가 되었으며, 알고는 있지만 막상 상담 시 막막한 대화기법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고 하였다.

박○○씨는 영상을 통한 장애인식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실질적인 상담 시 유용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서 알찬 강의였으며, 강북센터에서 기초·심화·보수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뜻 깊었다고 말씀하셨으며, 박○○씨께서는 동료상담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부분은 좋았고, 다양한 상담기법을 접할 수 있었으며, 토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상담에 대한 감각을 깨울 수 있게 하는 강의 방법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본인도 동료상담가로 활동하며 절망과 자기연민 속에 빠져있는 다른 장애인을 돕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수교육은 토론과 실습을 통해 실질적으로 응용 가능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한 층 더 역량 있는 동료상담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한○○씨는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사고로 지체장애가 되어 가족들에게도 사회



보수교육 단체사진

## 10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영화관람 진행

김지연



자조모임 마지막을 아쉬워하며... TT

옆 사람과 근황을 물어보며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음식이 나왔고 맛있게 점심을 먹기 시작하였다.

그날의 점심메뉴는 모든 참여자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찜닭이었다. 참여자들 모두 너무 맛있다며 입을 모아 말씀하시니 나 또한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점심을 먹으며 그동안 진행했던 자조모임에 대하여 얘기를 시작하였고, 참여자들과 활동지원사 분들은 지금까지 참여해왔던 프로그램 중 가장 재미있었던 것과 다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말씀하시며, 그동안 재미있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화 관람에 대한 기대심도 내비추시며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어 기쁘다는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그렇게 맛있게 점심도 먹고 즐거운 이야기도

지난 11월 14일, 10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영화 관람을 수유 롯데시네마에서 진행하였다. 18년도 마지막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으로 다른 날보다 일찍 모여 다함께 점심을 먹으며 그동안 진행했던 자조모임에 대하여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마지막 자조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시간에 맞춰 도착하였고,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향하였다. 식당에 도착한 참여자들은 세팅된 자리에 앉아서



어머! 이건 먹어야~~ ㅎㅎ



영화관람 중입니다~~

나눈 후에 영화 관람을 하러 수유 롯데시네마로 이동하였다.

이번에 관람한 영화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라는 외국 영화로 화려한 영상미와 흥미로운 스토리로 참여자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영화였다. 2시 10분에 시작하는 영화로 시작까지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참여자 출석체크 및 자립생활역량척도를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역량척도를 통하여 자조모임 참여자분들이 이제껏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자립생활에 대

한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었다.

자립생활역량척도조사를 마친 후, 참여자들에게 공지사항 및 영화관람 시 지켜야하는 에티켓 등을 알려드렸고, 매표소 앞에 모여 포스터를 들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몇몇 분들은 단체사진을 찍는 것이 쑥스러운지 얼굴을 가리기도 하였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 참여자분들이 더 즐거워하였다. 단체사진을 찍은 후, 영화 관람을 하러 12층으로 올라가서 입장전 다시 한 번 출석체크를 한 다음 영화관으로 입장하여 각자 자리에 착석하였다.

참여자들은 영화가 시작하기 전까지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 비추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조명이 일제히 꺼지면서 영화가 시작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참여자들은 영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134분간의 영화가 끝나고 간략하게 영화 감상평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영화가 약간 어려운 감이 있었지만 화려한 영상효과가 많이 있어 재밌었다는 평을 해주었다.

참여자들 모두 선정 영화에 만족하였고, 내년 자조모임에 참석하고 싶다는 반응들을 보여주셔서 2018년도 마지막 자조모임을 기분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10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단체사진

## 하반기 체험 김치 담그기

정진경



신○○씨도 열심히 김치를 담가요~~^^

드디어 11월 23일, 살짝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교육실에서 다른 날보다 일찍 출근한 강북센터 스텝들은 서로 합심하여 절인배추의 물 빼기를 시작하였다. 손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오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김치 담그기를 체험할 참여자들을 생각하며 모두 열심히 몸을 움직였다.

물 빼기 작업이 모두 끝난 후 사전에 미리 세팅해 놓은 김장매트 위로 참여자분들께서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배추와 양념을 골고루 풀어놓았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체험 시간이 다가왔고 참여자분들께서 하나 둘 체험을 위해 교육실로 도착하셨다. 참여자분들은 먼저 명단에 싸인을 하신 후 일회용 장갑과 앞치마를 끼고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그는 체험에 임하셨다.

상반기 때 참여해 보신 분들의 경우, 배추와 양념의 맛에 매우 만족하셨다며 능숙하게 체험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시는 반면 체험이 처음인 참여자분들은 약간은 낯설어 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센터의 스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옆에서 무사히 체험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11월 23일(금)10:00~17:00까지 강북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교육실(1707호)에서 하반기 체험 김치 담그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행사 전부터 센터의 모든 스텝들이 김치 담그기 프로그램에 쓰일 각종 비품을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여 행사당일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며 준비하였다.



배추가 아주 실하네!!



열심히 담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아울러 이○○씨(女)참여자도 직접 담근 김치를 함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거라는 소감을 밝혀 괜히 꼬깔을 시큰하게 만들었다.

참여자분들과 스텝들 모두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김치를 담그다 보니 체험 김치 담그기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마지막 참여자분이 돌아가신 후에야 긴장이 풀렸는지 온몸에 통증이 물밀 듯 찾아와 스텝들 모두 누가 먼저할 것도 없이 자리에 앉아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프로그램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비록 몸은 고된 하루였지만 참여자분들이 스스로 직접 담근 김치를 한손에 들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시던 모습을 돌이켜 보며 참여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체험이었다고 생각되어 스텝으로서 뿌듯함과 동시에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참여자들 중 신○○씨(女)참여자의 경우 처음에는 배추에 양념을 묻히는 것에 대해 낯설어 하시는 모습을 보였으나 몇 번 해보자 촉감이 좋다고 배정된 양을 채우고도 계속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옆에서 활동지원사가 간신히 달래는 등의 해프닝도 일어났다. 또 다른 신○○씨(男)참여자는 배추를 마치 아기를 어루만지듯이 양념을 바르는 모습을 보여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양념을 꼼꼼히...^^

< 자립생활주택 여가·문화체험 >

# 입주자 김○○씨 개별 ILP - 고양 스타필드

김다희

자립생활주택 여가·문화체험의 일환으로 10월 23일 입주자 김○○씨의 개별 ILP를 진행하였으며, 장소는 고양 스타필드를 방문하게 되었다. 휠체어 접근성을 고려하여 처음 계획이었던 하남 스타필드가 아닌, 고양 스타필드로 장소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귀가 시에도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고양 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로 사전에 등록하였으며, 그 덕분에 개별 ILP를 마친 김○○씨는 무사히 주택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

고양 스타필드로 가는 길은 서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아침 출근 시간이었어서인지 예상시간과 다르게 10~2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하였지만 입주자 김○○씨는 새로운 장소를 경험한다는 것에 한껏 들떠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고양시 스타필드 도착을 했습니다~~!



쇼핑은 아이쇼핑이지~ ^^

아침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바쁘게 움직여서 그런지 다들 배고픔을 심하게 느껴, 고양시 스타필드에 도착하자마자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 3층으로 향하였다. 입주자 김○○씨는 다양한 메뉴들 중에 국밥을 선택하였고, 최근 방문하였던 다른 장소보다 맛이 확실히 좋다는 입주자 문의 평가를 들을 수 있었으며, 점심식사 후 지하 2층에 위치한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구경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처음 방문해보는 대형 마트에 대량의 물건들과 싼 가격에 놀란 입주자 김○○씨는 싼 가격에도 돈을 아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평소 절약정신이 투철한 분이지만, 대용량에 비해 싼 가격을 확인하신 후 '이 건 사야겠어, 이거 하나 사자' 라고 말씀을 하시며 여러 개의 식자재를 구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김○○씨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곳 역시 '이마트 트레이더스'였으며, 다음에는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쇼핑을 마친 후, 우리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4층으로 이동하였고, 안타깝게도 입주자 김○○씨는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이 많아 앉아서 체험을 진행 할 수 있는 VR(가상현실) 체험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았다.



VR (가상현실) 체험 중~



아트박스에서 즐거운 쇼핑~~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김○○씨는 처음 접해보는 VR 체험에 너무 신기해하시고 재미있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시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그 모습을 보니, 좀 더 다양한 테마의 체험을 접하게 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 가지 테마 중 롤러코스터, 바이킹, 자이로스윙 등 다양한 놀이기구 체험을 접할 수 있게 도와드렸고, 비록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서 타는 놀이기구이지만 너무 행복해 하시는 입주자 김○○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입주자 김○○씨에게 가장 즐겁고 재미있었던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이번 여가·문화체험을 행복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 나의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영우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 실습생 '이영우'입니다.  
10월 22일을 시작으로 강북센터에서 사회복지 실습을 하게 되어 너무 떨리는 마음과  
제가 과연 실습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영우는 열심! 열심! 일해요~~

그런 떨림과 걱정이 섞인 설레는 마음으로 실습 첫 날, 막상 강북센터에 출근을 하니 센터 직원 분들이 밝은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어 한시름 놓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자리는 팀장님과 정○○선생님이 계신 방으로 처음엔 솔직히 긴장과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긴장할까, 부담을 느낄까. 팀장님과 정○○선생님께서 농담도 먼저 하시고 따뜻하게 해주셔서 저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팀장님과 정○○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준비과정을 돕는 일을 시작으로 센터 일을 도우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하는 저에게 이○○선생님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서류를 정리하는 일과 서류정리에 대한 노하우 및 컴퓨터 활용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습기간 중 센터에서 진행하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의 일환으로 영화관람 프로그램의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텝으로 참여한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발달장애인의 자조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출석 및 인원체크와 참가자 분들이 영화를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린 장애인분은 송○○씨로 다운중후군을 앓고 있으며, 밝은 모습으로 말씀도 잘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 20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영화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를 보았으며, 관람 후 참여자분들께 척도검사지와 영화만족도조사지를 나눠드리고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외부행사에 참여한 것이 처음이라 걱정도 많이 하였지만, 자조모임 담당 선생님들 덕분에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조모임 담당이었던 정○○선생님께서 저에게 만약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영화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보셨지만,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 당황하여 대답을 못하였지만, 차후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말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16일로 끝이 나겠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자상하게 일을 가르쳐주셨던 선생님들과 헤어지는 건 정말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 강북센터에서 23일에 진행하는 '체험 김치담그기'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습기간 동안 많은 일을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며,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강북센터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이달의 정보

### 내년 예산안 35조7843억원 편성...활동지원도 확대

내년 서울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102호의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하고, 보증금과 월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9년 예산안을 35조 7843억원으로 편성,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35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이다. 특히 복지예산이 내년 10조원대를 첫 돌파한 11조 1836억원을 배정했다. 먼저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를 확보해 지원한다. 장애인 82호, 정신장애인 20호 등 총 102호의 취약계층 자립생활주택을 지원한다. 시가 주택을 제공하고 보증금과 월세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장애인, 노숙인 등 시가 주택만 제공하는 '취약계층 지원주택'도 장애인 80호, 노숙인 138호, 어르신 40호 등 총 258호를 공급한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예산도 2618억원으로 편성, 24시간 서비스, 고령장애인대상 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등 장애정도,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돌봄으로 지친 가족과 종사자를 위해 '장애인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에 15억원을 투입, 장애인 가족 2850명, 어르신 가족 1000명의 가족이 휴가를 다녀올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년 3월 89억을 들여 서울사회서비스원을 개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처우를 개선한다. 4개 산하센터는 7월 개소할 예정. 그 외 복지정책으로, 찾아가는 산후조리사를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 조소특과 장애산모는 본인부담 30%, 기타 대상은 본인부담 약 50%로 이용 가능하다.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100개소를 추가 확충해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

이웃과의 교류가 끊긴 독거중년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 센터를 2개소, 24개구에 우선 실시한다. 건강취약계층에게 질 높은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찾동 방문간호사도 771명 늘려 동별로 1.8명씩 운영할 방침이다

출처 - <http://www.abl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1101094709086732>

### 내 근골격계 통증, '쉽게 따라하는 키네시오테이핑' 온라인 교육으로 고민 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테이핑요법의 원리와 적용방법을 소개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18년 11월 현재 '쉽게 따라하는 키네시오테이핑' 과정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골격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원은 이러한 통증을 없애길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쉽게 따라하는 키네

20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시오테이핑'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쉽게 따라하는 키네시오테이핑'은 1. 키네시오테이핑의 원리와 부위별 테이핑 방법 1(목, 어깨, 팔, 손 및 손목), 2. 키네시오테이핑의 원리와 부위별 테이핑 방법 2(허리, 허벅지, 무릎, 발목 및 발) 총 2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원은 " '키네시오테이핑 요법'은 많은 근골격계 치료법 중 손쉽고 부작용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며 "이 과정을 통해 키네시오테이핑 요법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용이하게 사용하여 개인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ewelnews/news/retirevelNewsDetail.do?dataSid=6637393>

## 전국 찾아가는 장애인 무운전교육 사업

### □ 교육대상

- 면허종류: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
- 장애유형: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 장애등급: 1~4급
  - \* 5~6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운전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전화상담)

### □ 교육방법: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

- \* 교육과정별 1회에 한하여 교육 가능

### □ 신청방법: 상담 후 서류 제출

- 상담: 전화 02-901-1553  
온라인상담(청각장애인): 카카오톡 플러스
- 제출: fax 02-901-1550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 홈페이지: [www.nrc.go.kr](http://www.nrc.go.kr)

### □ 운영시간: 연중 08:30 ~ 17:30

- \* 온라인 상담시간: 13:00 ~ 17:00
- \*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 등 공휴일 제외

출처- [http://www.nrc.go.kr/nrc/board/nrchtmlView.jsp?menu\\_cd#M\\_03\\_01\\_01](http://www.nrc.go.kr/nrc/board/nrchtmlView.jsp?menu_cd#M_03_01_01)

# 괜찮아

권자미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괜찮지 않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괜찮은 게 있던가요  
세상에 괜찮은 건 없어요  
우린 괜찮지 않을 때  
놀란 얼굴로, 괜찮아?  
문곤 하지요  
괜찮지 않아도  
아프지나 말자고  
떠나는 당신 등에 대고  
나는 말해요, 괜찮아요  
나를 향해서도 말해요, 괜찮아  
괜찮아요  
그런 줄 알지만 다 알지만  
왼쪽 귀를 대봐요  
당신도 괜찮지요  
하면서도 괜찮지 않았으면 해요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b>◆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b>			
수납업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납목적	회원회비
대표자	정종남	사업자등록번호	210-82-68864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b>◆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b>			
신청정보	신청인	예금주와 관계 : ( )	연락처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고정금액 ( 원) <input type="checkbox"/>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납부일
금융거래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효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할 [ ]    동의하지 않을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효성에프엘에스㈜,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재휴사 소개 메뉴 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등의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할 [ ]    동의하지 않을 [ ]	
# 자동이체 동의여부    동의지 안내 : 효성에프엘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회비 납부를 위해 효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 |                        |     |     |     |     |     |     |     |
|------------------------|-----|-----|-----|-----|-----|-----|-----|
| <b>18년 11월 회비납부 명단</b> |     |     |     |     |     |     |     |
| 김낙현                    | 김석현 | 김숙이 | 김용자 | 김은미 | 김은순 | 김재환 | 김지연 |
| 박동열                    | 박민숙 | 배소영 | 손연숙 | 안해영 | 오재준 | 윤두선 | 이동현 |
| 이상훈                    | 이영훈 | 장민정 | 전난희 | 정종남 | 정주영 | 정진경 | 주영경 |
| 최윤숙    최전균    허효숙      |     |     |     |     |     |     |     |
|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     |     |     |     |     |     |     |

20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 2018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회

강북센터에서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평가회는 2018년 한 해에 대한 사업평가 및 함께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석바랍니다.

사 업 명	2018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평가회		
일 시	2018년 12월 14일(금) 15:30 ~ 18:00		
장 소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 (강북구 삼각산로 85)		
참 여 대 상	강북센터 이용자 및 회원 100여명		
행 사 계 획	시 간	내 용	비 고
	15:30 ~ 15:40	참여자 방명록 작성	1부
	15:40 ~ 15:50	일정안내 및 축사	
	15:50 ~ 16:10	전달사항 안내	
	16:10 ~ 16:30	단체사진 촬영 및 휴식시간	2부
	16:30 ~ 17:25	2018년 강북센터 평가회 진행	
	17:25 ~ 17:40	질의응답	
17:40 ~ 18:00	마무리 및 폐회사		
기 타 문 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996-7776 ✉ kbcil@daum.net		

※ 위 일정은 센터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지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Tel : 02-908-7776 FAX : 0303-0799-1758

